

당신이 행복하길 바라는
글로 전하는 마음♡

쟈스민 일보(一步)

쟈스민, 한 걸음 나아감

더 깊은 글은 "밑줄 클릭" 만으로 열람 가능합니다.

구독을 원하시면 [여기](#)를 클릭하여 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!

에세이가 가진 힘

에세이에는 기지개가 있다.
책을 덮고 펜을 들게 만드는,
그런 울림이 있다. 글 쓸 용기
가 필요한 당신에게 에세이
읽기를 강력 추천한다.

오늘도 당신 이름 석 자 조각중인 당신에게

나 드릴 말 있네

"좋아요" 와 "구독" 은
사랑의 다른 표현입니다.

현재시각03:07am

벌떡, 하고 일어났을 때 가
리킨 시간 새벽 3시 7분.
그럼에도 자야한다는 보챔
이 필요 없던 건, 다음 날
예정된 재택근무 덕이다.
때로 생긴 여유에 오밤과
새벽 어디, 지금을 즐기
기로 한다. 자리에 일어나 노
트북을 켜다.

쟈스민 일보(쟈스민, 한 걸음 나아감)를 개간하였습니다. 무엇을 실을 지는 정해두지 않았습
니다. 다양한 소식을 실을 예정이라, 나도 그 어디가 어디까지 인지 모르겠거든요! 당신의 이
야기가 실릴지도 모를 일입니다.

결국, 오다.

2021년 **ㅎㄷㄷ**



작년 한 해, 여러 면에서 공으로 보냈다.
"코로나인데 만나지 말자."

꿈과도 비대면으로 지냈기 때문이다. 대신 COVID19
뒤에 숨어 아프도록 대중 살았다. 회한이 많아 참 털고
싶던 한 해였던 건 그 때문이다.

털긴 털었다. 개운함이 덜 하는 건 여전히 기승하는 바
이러스 탓이겠지만. 그럼에도 "새 해"라는 것에는 도리
없이 다짐이 따라야 한다.

"2021년, 잃어버린 2020년을 회복하겠다.
더욱 행복하겠다."



♡ 광고 및 홍보 ♡



"32년째 엄마 사랑해"

아직 딸의 삶이 전
부인 나는, "엄마가
보여주는 사랑"을
전부 이해할 수 없
지만 그게 가없다는
것만은 압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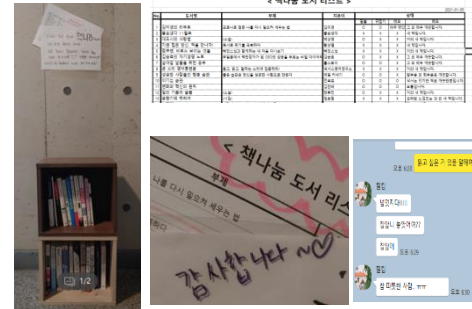
"스스로 품위를 지키는 삶, 자존"



자존은 키우고 가꾸는 거
라는, 그녀의 자존 생존
기를 녹였다.

쟈스민의 다양한 활동은
<https://brunch.co.kr/@supereunkyung>
기타 다양한 제안은
bestjasmineever@naver.com

월간 프로젝트 1월 : 선한 영향("나눔")



매 월 인생 프로젝트를 엽니다.

생(生)에 동(動)을 부여하는 의미로운
일, 혹은 즐거움 더하는 일을 찾아 기
획하고 실천합니다.

2021년 첫 1월은 "선한 영향(나눔)"이
었습니다. 중고로 팔까, 싶던 책들을
모아 나누기로 했습니다. 홀로 진행하
여 모인 책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, 잠
자던 책이 누군가에 전달되며 생기를
찾은 것 같아 기쁩니다.

2월은 캐리 스미스 "나를 위한 특별한
월간 달력 만들기" 진행할 예정입니
다.*(변동 가능)
참여 원하시는 분은 이메일
(bestjasmineever@naver.com)로 간단
한 자기소개 보내주시면 참여 방법 안
내 드리겠습니다.